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돌 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4:20)."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말하던 "이 산"이 바로 에발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전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을 떼어내어 북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에 성을 만들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 왕국에 사는 백성들이 남 왕국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 올라 갔다가 마음이 변하여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을 염려하여서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벧엘과 단에 두어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부르며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앞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 수가와 여로보암의 성이 있던 세겜은 바로 이곳에 있는 마을이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양 옆에 두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반을 세우고, 저주하기 위하여는 에발산에 반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에발산 근방의 사마리아가 예배 드리기에 더 적합한 장소라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비단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복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저주도 선포하고 있는데, 좀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축복이나 저주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

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명령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러한 선포는 이제 오늘 신명기 27-28장에서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여호와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택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군사가 싸우러 나갈 채비를 마치고 사령관의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들어보고 나서 순종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 보존하여서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에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많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원래의 의미를 잘 보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와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듣고 그 명령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청종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모든 것을 종합하는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복을 받는 말씀과 동시에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는 방법이라면 조금 모순된 표현 같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양적인 면에서 복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저주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는 비결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꼭 복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신명기 말씀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부분은 복과 저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복과 저주가 반드시 영적인 측면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복과 저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복과 저주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고난은 저주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도 유익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벌에 들어가는 것 즉 지옥에 가는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궁극적인 의미의 저주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둘째 사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분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